

▶ 인디영화 거장의 독특한 작품세계 엿보기

파격적인 실험정신 감각적인 영상미 소외계층 향한 따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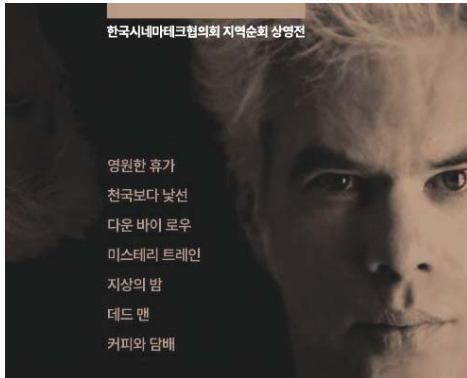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지역순회 상영전으로 열리는 '짐 자무쉬 특별전'이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열린다.

(사)전북독립영화협회 시네필전주와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가 주최하고 영화진흥위원회·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국제영화제·영화사 인다미로·전북영화비평포럼·전북대학교 인문영상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미국 인디영화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짐 자무쉬 감독의 데뷔작 '영원한 휴가(1980)' 등 초기 작품들을 비롯해 흑백의 영상미가 압권인 '데드 맨(1995)', '커피와 담배(2003)' 등 7편이 소개된다.

짐 자무쉬 감독은 전 세계 시네필들을 열광케 했던 '천국보다 낯선'으로 칸 영화제 신인감독상을 수상한 이후 기존의 영화문법을 파괴하는 실험정신과 단순하면서도 감각적인 영상, 길 위를 떠도는 밀바다 인생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블랙유머로 대표되는 스타일로 인디영화의 거장으로 추앙받고 있다.

본 상영전에서는 특유의 느슨한 리듬과 세 캐릭터의 호흡이 인상적인 '다운 바이 로우',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테마로 같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세 개의 에피소드



'미스터리 트레인', 닐 영의 음악과 흑백의 아름다운 영상이 돋보이는 새로운 스타일의 웨스턴 로드무비 '데드 맨', 커피와 담배에 관한 열 한 개의 대화로 구성된 '커피와 담배' 등 짐 자무쉬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는 대표작들을 상영한다.

'짐 자무쉬 감독의 특별전'
오늘부터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대표작 '천국보다 낯선' 부터
'커피와 담배' 까지 7편 소개**

짐 자무쉬 특별전은 유료상영(5천원)이며, 상영 전 영화 전문가의 영화해설 강의를 진행한다.
상영시간표 및 더 자세한 사항은 전북독립영화협회 홈페이지(www.jif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싱그러운 봄에 울리는 따뜻한 피아노 선율

유키 구라모토 '봄날의 꿈'
18일 군산예술의전당서

군산예술의전당이 오는 18일 피아니스트인 유키 구라모토의 공연 '봄날의 꿈'을 대공연장에 올린다.
유키 구라모토의 음악은 인물의 감정을 극대화하며 극의 몰입을 돕는 간결하고도 애절한 선율로 '듣고 또 들어도 다시 듣고 싶은 음악'이라는 평을 받으며 한국인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화이트데이 콘서트 '봄날의 꿈'은 그의 많은 레퍼토리 중 사람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Romance'를 시작으로 국내 드라마와 영화에 삽입되어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그의 음악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유키 구라모토는 피아노 솔로와 파르텔의 앙상블을 통해 그의 피아노 선율로 빛나던 다양한 감정의 선이 담긴 멜로디로 따뜻한 봄을 포근히 채워줄 예정이다.

티켓은 R석 4만원, A석 3만원으로 티켓링크(☎ 1588-7800)와 금강방송(1544-5400)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우리문고(☎ 445-0311)와 예술의전당 내 2층에 위치한 모차르트 커피숍(☎ 442-2500)에서도 오프라인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문정근 기자

우리 전통 소리와 피아노의 콜라보

국립민속국악원, '전인삼 with
임동창의 흥보가...' 18일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박호성)은 토요일 악초대석 '전인삼 with 임동창의 흥보가, Piano와 놀다'를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연다.

이날 공연에서는 흥보 제비노정기에서 놀보 개과천선하는 대목까지 흥보가의 대표적인 눈대목을 선보인다.

소리꾼은 고수의 북 정단에 맞춰 공연을 하던 기존 무대와는 달리 흥겨운 피아노 연주에 몸을 맡기며 소리를 이어간다. 공연은 전인삼의 힘 있고 호탕한 소리와 자유분방한 피아노 연주가 더해져 소리꾼의 흥겨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인삼 명창은 남원출생으로 동편제 판소리의 맥을 잇고 있는 대표적인 소리꾼



이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 판소리학회 부회장, 전남문화재 위원, 제23회 전주대시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 장원(대통령상), KBS 국악대상(판소리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전남대 예술대학 국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이자 허튼가락 창시자로 알려진 임동창은 전인삼 명창과는

국악 창작작업 및 연주활동을 함께 하며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왔다.
이들과 더불어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아쟁 연주가 김영길 명인과 소나기 프로젝트의 대표 장재호, 전북도립국악관 현악단 단장 조용안 명인도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전석무료이며, 선착순 전화예약을 통해 입장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군산문화원, 시민문화교실
수강생 선착순 모집

군산문화원(원장 이진원)이 시민들의 다양한 취미·여가 문화욕구 충족에 부응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익힐 수 있는 강좌 수강생을 15일부터 모집한다.

4개 과목으로 구성되는 '2017 시민문화교실' 프로그램은 농악, 민요마당, 일주 우리 전통춤, 생활중국어이며 각 분야별 전문 강사들이 수강신청을 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문화교실 강좌에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문화원 사무국에 방문 또는 전화(☎ 451-2138)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과목별 30명까지 모집한다.

이진원 군산문화원장은 "더욱 다양해지는 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번 강좌를 운영하게 됐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즐거운 배움의 과정을 통해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문화원은 오는 28일 오전 9시30분 문화원 강당에서 개강식을 갖는다.
/군산=문정근 기자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 7개과정 운영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신수미)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전라북도지원 직업교육훈련 7개 과정을 상반기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탄소산업분야제조인력, 전기·전자부품품질검사원, 단체급 식조리사, 법무사무원 4개 과정은 지난 6월 개강했으며 아파트관리사무소행정사무원, 특허전문인력(지식재산전문가), 제과생산전문인력 3개 과정은 오는 4~6월 개강할 예정이다.

각 과정 당 20명의 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선발하여 ERP 회계 시험 대비 이론 및 실습교육, 특허 및 연구개발 분야 교육, 제과제빵 이론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진행된다.

센터는 직업교육훈련생을 취업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전문 취업설계사가 적극적으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1:1 맞춤형 직업상담, 이력서 작성 컨설팅 및 동행면접도 지원한다.

또한 기업 인력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기업 및 구인 예정기업 CEO 및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하는 미니취업박람회를 열어 현장 면접 및 즉시 채용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남원시 춘향제

여행을 판다를 나와의 만남

- 춘향제 (5월)
- 철쭉제 (4~5월)
- 지리산둘레길 (3~5월)
- 요천번 보릿 (4월)
- 요천자전거길 (5월)